

4~11월 각종 축제로 관광객 유치 나선다

4월8~9일 유달산 봄축제 이순신·수군 콘텐츠 융합 국내 대표 축제로 만들것

목포시가 오는 4월부터 유달산 봄 축제를 시작으로 올 한해 다양한 축제를 펼친다. 축제추진위를 꾸려 각종 축제·행사 운영 방안을 모색 관광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달산 봄 축제와 목포 항구축제, 목포해상W쇼, 목포노을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유달산 봄축제는 오는 4월8일~9일 개최되며 봄을 알리는 목포의 계절 축제인 유달산에서 꽃길을 걸으며 목포의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올해는 이순신 및 수군 콘텐츠를 융합해 스토리가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목포 항구축제는 오는 10월20일~22일 펼쳐진다.

삼학도와 목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2023년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도약을 위해 목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파시'를 킬러 콘텐츠로 만든다는 포부다.

목포시는 청년은 물론,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 국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목포의 밤을 장식할 목포해상W쇼는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목포해상W쇼는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공연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시민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집을 이뤄 장관을 선보일 목포노을 드론라이트 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북항노을공원에서 펼쳐질 드론라이트 쇼는 상반기에 5월에 열릴 계획이며 하반기는 전국제전 사전 봄업을 위해 10월



목포시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축제를 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유달산 봄축제. 목포시 제공

개최한다.

축제 계획은 지난 16일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혁영)를 개최해 결정됐으며 이날 각종 행사에 대한 운영계획안 등이 심의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양한 축제 개최

로 관광객을 끌어모아 목포도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즐길만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로 문화관광 도시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2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독립유공자 외손에 위문금 목포 기관장모임 청호회



목포지역 국가기관장 모임인 '청호회(회장 목포교육청장 정대성)'는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故 박진철 외손에 위문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문금은 오는 3·1절을 맞아 목포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선정했으며 송인정 광복회전남도지부장이 대신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박진철은 동경 한인 학생들이 조직한 라비트 그룹에 가입해 조선 총독정치 반대, 일본역사교육 반대 등 대한독립을 위한 학생운동을 펼쳤다. 1944년 5월 당시 근무하던 삼릉 군수공장에서 비밀문서를 입수하고 공장을 폭파하는 등 계획을 세우다가 같은해 9월 일본 헌병대에 붙잡혔다. 소암형무소에 수감된 후 동경구치소로 이감돼 이듬해 6월 15일 출감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드림하이 장학금 전달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포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상식)는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장학금은 장미진 위원이 기탁한 것으로 드림하이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중·고교 신입생 8명에 지원된다.

최상식 위원장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취약계층 식재료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 행복밥상' △사랑의 동전 모금함 장학금 전달 △효자장면 나눔행사 △행복전달 나눔가게 △어르신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그림책 힐링테라피' 등 활동할 계획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영어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목포영어도서관

목포영어도서관은 오는 6월23일까지 목포시와 인근지역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초등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영어독서·문화프로그램과 영어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영어독서·문화프로그램은 알파벳 음가를 배우는 '파닉스'와 영어 동화를 읽고 역할 놀이를 하는 'Read & Act', 수준별 어린이 영어회화 강좌 '톡톡 잉글리시' 등 11개의 강좌가 운영된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초보자를 위한 '왕초보 영어회화' 저명인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TED Talks' 등 2개의 강좌를 운영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초·중·고 만학도 249명 졸업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어른들이 공부하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초·중·고 만학도 249명이 학업을 마쳤다.

26일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초등문해교육프로그램 김승태 외 23명, 중학교 김명숙 외 62명, 고등학교 모정임 외 161명 총 249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합격자는 116명이다. 목포대학교 5명 외 111명이 3월이면 대학 새내기 입학하게 된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2020년 개인 사립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 재단법인 인항토로 설치자를 변경한 재단법인 학력인정학교이다. 현재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보급 목포시, 약성민원 대응

목포시는 약성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민원 부서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할 수 있고 녹음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다.

웨어러블 캠 보급으로 약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사실을 고지해 약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원인 대면 업무가 많은 시청 민원실 4대, 사회복지과 2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보급하고 지난 22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지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가 초·중·고 만학도 249명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 중 116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매년 만학도들의 평생교육에 앞장서 오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 제공

목포시의회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여 않겠다"

목포시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4일 태원여객·유진운수에서 제출한 경영개선안을 통한 노선개편과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등에 의원 개인 차원의 불합리한 관여 하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목포시내버스 노선은 16년 전인 지난 2007년 만들어졌으며 당시 469개소였던 승강장은 민원요청 등으로 증설을 거듭해 현재 527개에 달하고 있다.

운영 개선을 위한 노선개편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일부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와 민원성 개입이 시내버스 경영 악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시내버스 지난해부터 운행중단 과정에서 불거진 불합리한 노선에 일부 시의원들의 개입은 입살에 오르내렸다.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확립은 향후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노선 개편은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목포시는 지난 해 3월 시내버스 노선

체계개편 용역을 발주해 같은 해 10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노선별 구체적 평가가 없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일부 노선의 분리와 조정에 그쳐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은 당초 2023년 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6월로 용역기간이 연장됐다.

목포=정기찬 기자

'대기환경 개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포시는 2023년 상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보급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 승용·초소형 전기차 166대, 전기화물차 89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대당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30만

원, 화물차는 195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계속 해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거나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목포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 법인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무궁해자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승용·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화물전기차는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목포=정기찬 기자